

밀당365 기억력 QUIZ
상품이 더 푸짐해졌다!! 매일매일~ 추천!!
퀴즈 풀러 가기>

☰ 🔍

헬스조선

[뉴스](#)
[심층기획](#)
[명의](#)
[헬스조선 프렌즈](#)
[라이프](#)
[밀당365](#)
[아미랑](#)
[힐링여행](#)
[헬스케어N](#)

"現 CAR-T 치료제, 혈액암에 제한적... 고형암 정복 노력 필요"

정준엽 기자 | 입력 2024.07.15 10:05

'바이오플러스·인터팩스 코리아(BIX) 2024'



CAR-T 치료제의 고형암 정복은 가장 큰 해결 과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왼쪽부터 노바티스 '김리아', BMS '브레안지', 안센 '카빅티'/사진=노바티스, BMS, 안센 제공)

세포·유전자 치료제(CGT)는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2026년 기준 약 1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등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CAR-T(키메라항원수용체)' 치료제를 포함한 많은 세포·유전자 치료제가 향후 개발 과정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도 많다는 지적이 있다.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플러스·인터팩스 코리아(BIX 2024)'에서는 '암 정복을 향한 도전, 새로운 CGT 기술'이라는 주제의 컨퍼런스 세션이 진행됐다.

세션에서는 생체 외 유전자 치료제의 일종인 'CAR-T 치료제'가 주로 다뤄졌다. CAR-T 치료제는 환자로부터 추출한 T세포에 암세포 특이적인 키메라 항원 수용체를 발현하는 유전자를 조합해 만든 생체 외 유전자 치료제(ex-vivo Gene Therapy)다. 연사들은 CAR-T 치료제의 강한 치료 효과에 주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CAR-T 치료제가 향후 이뤄나가야 할 과제에도 주목했다. 세션에 참여한 연사들은 CAR-T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어떤 것들에 주목했을까?

◇최대 숙제, 고형암 정복... 안전성 제고 필요

연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가장 큰 숙제는 CAR-T가 고형암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노바티스의 '김리아', BMS의 '브레안지', '아베크마', 안센의 '카빅티' 등 시장에 출시된 6개의 CAR-T 치료제는

많이 본 뉴스

- 1 뜨거운 물에 '이것' 놓 살 빠지고 피부 탄탄
- 2 흔히 겪는 '이 증상',! 끊으라는 신호
- 3 "소금 많이 먹는다고 통설 뒤집혔다
- 4 "백내장 수술 앞둔 이 경험 있다면... 불규칙
- 5 채소 챙겨먹기 귀찮다 '이것' 한 잔만 마셔도

건강 뉴스레터

밀당365: 월·수·금 발행



아미랑: 화·수·목·금 발행

456번째 편지
순간의 과욕이 화를 부르지 않!

모두 혈액암만을 표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형암으로의 확대를 위한 연구가 아직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진메디신 윤채옥 대표는 "현재 지금 시판되고 있는 CAR-T 치료제는 모두 혈액암에 집중돼 있다"며 "CAR-T 치료제가 더 많은 환자들에게 보급되기 위해선 고형암 치료를 위한 연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CAR-T 치료제가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혈액암처럼 암세포에서만 발현하는 항원이 있어야 하는데, 고형암 표면의 항원은 정상세포에도 발현하기 때문이다. 서울대 의과대학 최경호 부교수는 "종양의 특정 B세포 계열에서만 반응하는 혈액암과 달리 고형암의 경우 종양이 정상세포의 일부에도 발현한다"며 "이는 CAR-T 치료제가 종양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안전성에 관한 문제도 지적했다. CAR-T 치료제가 효과가 강한 만큼, 독성 문제도 크기 때문에 이를 통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지씨셀 원성용 세포치료제 연구소장은 "고위험 치료제의 임상 총괄을 맡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안전성"이라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연구자 임상 주도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틀젠 이재영 이사는 "임상 환자 중 최대 38%가 CAR-T 치료제로 치료받는 것을 거부한다"며 "이는 많은 환자들이 CAR-T 치료제의 가격과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이오플러스-인터팍스 코리아(BIX 2024)'의 '암 정복을 향한 도전, 새로운 CGT 기술' 세션에서 연사들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메디신 윤채옥 대표, 셀레브레인 서해영 대표, 지씨셀 원성용 연구소장, 서울대 의대 최경호 부교수, 틀젠 이재영 이사)/사진=정준업 기자

◇국내 제약사 CGT, "글로벌 진출 빨라져야"

한편 세션에서는 한국 세포·유전자치료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연사들은 국내 제약사들의 세포·유전자 치료제가 빠르게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원성용 연구소장은 "전세계의 CGT 기업 1500여 개 중 3분의 1이 아시아에 분포할 만큼 아시아는 인력 인프라에 강점이 있다"면서도 "국내 제약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CGT 제품이 빨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기술 수준 측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등장했다. 최경호 부교수는 "우리나라는 항체 제조에서 기술의 성숙도가 높지만, 독창성이 부족하다"며 "세포·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제조 공정이 일정 부분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인풋이 어느 정도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그 인풋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명의 칼럼

방사선과



"유방암, 초기라도 방
받아야 하는 이유

대림성모병원 김주리 방사

객원 칼럼



성기능 보존·비율
전립선비대증 수
골드만 비뇨의학과



속쓰릴 때 먹는 약
있을까?
서울부민병원 응급



효과 가장 확실하
중요한 전립선비
골드만 비뇨의학과

헬스조선 프렌즈

헬스조선 프렌즈 병원은
친절하고 기금 따뜻한 진료들

골드만 비뇨의학과 강남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2
골드만비뇨의학과강남

서울아이비에프여성의원
인천 남동구 인화로507번길 63,
모아메디컬타운 6층

의료계 뉴스

메디컬투데이
원택, 이한구 CFO 영입... "글로벌

끝으로 국내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잡한 규제의 보완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셀레브레인 서해영 대표는 "한국의 CGT 연구가 다소 미진한 것은 세포치료제에 대한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복잡한 규제가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하고 임상 승인 단계별로 규제를 차별화해 적용하면 제약바이오사들의 임상 진입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 기사 스크랩 URL공유 댓글 쓰기

정준엽 기자

[기사 전체보기 >](#)

저작권자 © 헬스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기사

- ▶ 갑자기 주저앉아 못 걷는 아이, 혹시 버킷림프증?
- ▶ [아미랑]‘운동 마니아’의 혈액암 판정… 어떻게 극복했을까?
- ▶ 가수 안영하신가영, 1년 만에 혈액암 4기 완치… ‘버킷림프증’ 뭐길래?
- ▶ 가수 진성, ‘이 암’ 투병으로 은퇴 고백했다… 무슨 일?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실용적인 기술로 주식 시장에서 눈에 띄세요!

PR (원 콘클린 유한 책임 회사)

이 투자'로 시작하세요, 기다림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PR (하나증권 주식회사)

15만원으로 10억 벌기, 주식 투자 비법 알아보세요!

PR (하나증권 주식회사)

중국 1살 여아 두개골서 손발 갖춘 '태아' 발견… 이게 무슨 일? - 당신의…

뉴진스 다니엘, 충격적이게 노란 '손 색깔' 화제… 평소 좋아하는 '이 음식'…

"다이어트, 딱 4주면 된다"… 전문가 박용우 교수가 전한 '지방 없애는…

Recommended by

지금 뜨는 콘텐츠

헬스코리아뉴스

발작성 기침 백일해, 전국 학령

의사신문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 (DUR) 활용 우수기관에 ..

메디칼업저버

올트위 “협약체 회의 잠정 중단 아냐…20일 정규회의..

식품저널

식품진흥원, 기업지원센터 독립



앞으로 가장 많이 오를 주식 '이 중에서'
결정하세요
PR (하나증권 주식회사)

증시 하락 시점, '이 종목'에
주목하세요 ! ♪
PR (하나증권 주식회사)

"비만세포,내장지방" 한 달간 "칼칼"
쏟아낸 비결! 9kg 바로!
PR (SBLACK) Recommended by



의료계 뉴스 N

실시간 **나이백, '노화세포 제거기술' 中 특허등록**



보건정책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6월 자료 제출
통해 연말 공개



약사·제약

푸바오와 사쿠라



병·의원

아토피피부염, 개인 맞춤 치료 시대 성큼



식품·건식

오유경 식약처장,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우려 커지자 소금 생산업체 방문



의료기기·IT

루닛, 볼파라 인수 최종 완료... "AI 통한
의료혁신 가속화"



기타

자가면역질환 환자, '감상선암' 발병 위험
높아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광고안내** **컨텐츠구매** **서비스 전체 보기**

헬스케어N(RSS) **건강칼럼**



등록번호 : 서울, 아01174 등록년월일 : 2010.03.19 발행년월일 : 2005.10.14 발행인 : 임호준 편집인 : 임호준 제호 : 헬스조선 상호 : (주)헬스조선
사업자번호 : 104-81-98445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0 Tel : 02-724-7600 Fax : 02-722-9339 청소년보호책임자 : 표형원

Copyright © HEALTH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조선